

에스겔11강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5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네 수염을 밀어서, 저울에 달아 그 털을 나누었다가,

포위하는 날이 차거든 너는 성읍 가운데서 털 삼분의 일을 불로 사르고 너는 삼분의 일을 가지고 그 것을 칼로 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너는 또한 그 중에서 얼마를 집어 네 옷자락에 싸고

그 중에서 집어 불 가운데로 던져서 불에 태우라. 이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나올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내가 이것을 민족들과 그녀를 둘러 있는 나라들 가운데 두었으나

그 녀가 민족들보다 더 많이 내 명령을 사악함으로 바꾸었고 내 규례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많이 바꾸었으니 이는 그 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공의에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민족들의 목전에서 네 가운

데서 심판을 행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가증함 때문에 전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할 그 같은 일을 네 안에서 행하리라.

그리하여 네 가운데서 아버들이 그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먹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가 너의 모든 남은 자들을 사면에 흘으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나니 내가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네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소멸시킬 것이요,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하시는지요, 우리가 한 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에스겔로 넘어 온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구인구가 반이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70억이라면 35억이 죽는 거죠, 그 35억이 죽을 때 어떨겠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이 죽을 때도 비참했는데 35억 정도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 말로 비참한 것 중에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보다도 착한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는 것을 볼 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방민족 보다 축복을 받으니까 이들이 살이 썩어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이 성경을 기록하므로 모든 세계만민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이 대신 그 비참하게 정말 심판을 받으며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니까 너희는 다른 길은 없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 한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완전할 수 없다. 완전하게 되는 길은 길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 없다.

그 예수님 죽였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란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인가? 요한계시록과 구약을 공부해 보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왜 죄인 줄 모릅니다. 오직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암보다 더한 거죠, 암은 육신만 죽이지만 죄는 영원토록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혼을 온전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죠. 파멸시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해 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입으로만 종교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가지고 세례 받는 것 이래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게 뭐니까 이 성경을 알아 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들이고 그럴 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 온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 것을 알지 못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그리스도를 율법의 죄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것들을 예수님의 육체에 전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때 율법 전체를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 환란에 넘어 가잖아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또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 환란에 전부 끄 집어내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구약을 보지 않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공부 안 하고 구약도 공부안 하고 그저 은혜, 은혜, 은혜만 찾는데 그 은혜가 뭐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뭐죠,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으면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냥 들어 오시더라구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멸망, 심판 이렇게 멸망치 않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이 간단하지만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다 아시죠, 구약 전체를 다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성경이 뭐죠, 구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나오기 전이에요, 교회도 생기기 전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성경을 상고해 보아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지만 바로 성경은 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상고해 보아라.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고, 우상 이에요, 우상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런 줄 알고 있죠, 아닙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기 전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성경을 못 보게 하죠, 자 이제 5장에 또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네 수염을 밀어서, 문맥을 보면 머리털과 수염은 예루살렘에 다 밀어 버려라,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민족을 본토에서 다 쫓겨나게 하겠다. 나를 잃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뽀뽀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삭도를 삼는다. 머리를 미는 것은 칼로 밀어버리는 거죠,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아주 가슴을 찢었을 때 여러분 욱이 그랬죠, 욱이 하루아침에 아들딸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했을 때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애통함의 표현이죠,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 삭도로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부스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절대로 머리를 밀면 안 돼요. 율법에 레위기서 21장 5절 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대 머리가 되지 말고 턱수염 가를 밀지도 말 것이며, 살을 베지도 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절대로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에스겔이 제사장인데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밀어 버려라, 그 수염이 흩어지잖아요, 날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 질 것을 다 보여 주니까, 할 수 없이 예외적으로 에스겔은 수치스럽게

되겠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삭도를 대서 다 밀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2장11절 보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옛날에 암몬 왕이 죽었어요, 암몬 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10장4,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냈어요,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냈는데 거기 하논 왕이 말이죠, 그들을 의심했어요, 이것들 스파이구나! 그래가지고 조문사절단을 말이죠, 수염을 반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엉덩 밑까지 까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런 거예요, 수염을 반을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또 엉덩이를 보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슬퍼하면서 그래 너희들 수염이 자랄 때 까지 집에 있다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다 수염 기르잖아요, 수염 깎는게 수칩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오소독스 유대인들은 절대로 수염을 안 깎습니다. 길어 다니죠, 이 사람들은 목욕도 잘 안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1절에보면 저울에 달아서 그 털을 나누라 그랬어요, 세상에 털을 저울에 달게 뭐있습니까? 저울에 달아 봐야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그게 무슨얘깁니까? 하나하나를 달아라 이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이게 심판이 얼마나 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한 것인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미치도록 하시는 의지를 나타낸 거죠, 그러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율법을 몰라도 결국 범하고 있죠, 독약인지 몰라도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율법을 모른다고 할 수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니냐? 전하는 자가 없으니 못 믿죠, 보내시는 자가 없으니 가서 전하지 못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이 말이죠, 이 그 한 마디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한 마디를 볼 때 내가 그 성경을 알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

을 받은 것 이것을 알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하고 그냥 배워서 하는 것 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영영 울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영영 울면서 붙잡고 늘어 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럴 때 믿을 게 그러는 거예요, 옛날 교회 어떤 분이 그 집안이 다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부모님한테 전도를 못 하더라구요, 예수믿으세요, 싫다고,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전하지를 못 하더라구요, 왜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고 구약부터 요한계시록의 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모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포위하는 날이 차거든 너는 성읍 가운데서 털 삼분의 일을 불로 사르고 너는 삼분의 일을 가지고 그 것을 칼로 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에 나와요, 12절 삼분의 일은 포위 되어 있는 동안 전염병으로 죽고 또 삼분의 일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다른 삼분의 일은 성읍이 포위 되고 공격할 때 적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나머지 바람에 날려버린 삼분의 일은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서는 살아나지만 이방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질텐데 그래서 이방민족들 손에 붙여집니다, 노예처럼. 이렇게 12절에 나와요,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뺏다는 것은 이방민족을 통해서 이방민족들의 손에 칼을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할 때는 이방민족들, 예를 들어서 앗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히틀러, 앞으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제국이죠, 앞으로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칼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도끼로, 도끼자루를 하나님이 들고 쓰는 건데 그들은 도끼죠, 하나님이 잡고 쓰는 거죠, 그런데 도끼가 교만해 지나가 다 꺾어 버린 거죠, 바벨론도 꺾어버리고, 이집트도 꺾어버리고, 다 꺾어버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꺾어버리고 히틀러도 꺾어버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쁘게 사용되는 거죠, 나쁜 천사로 사용되는 거죠, 3절 보니까 너는 또한 그 중에서 얼마를 집어 네 옷자락에 싸고

극 소수 만이 예루살렘에 잔존하게 될 것이다. 그들마저도 완전히 파멸 될 것을 4절에 말씀했죠.

그 중에서 집어 불 가운데로 던져서 불에 태우라. 이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나올 것임이라.

참 비참한 것입니다. 삼분의 일 삼분의 일 삼분의 일,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시킨다. 기가 막히는 얘깁니다. 5절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내가 이것을 민족들과 그녀를 둘러 있는 나라들 가운데 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집트가 있죠, 바벨론이 있죠, 옆에 시리아가 있죠, 앗 시리아, 그리고 지중해 여러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아랍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때부터 이방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한 상업시대 아주 엄청난 위세를 떨쳤죠, 그래서 이방민족들이 조공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통치하는 것처럼 솔로몬 왕 때 그런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 한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방민족들에 한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끝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살리죠,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겠습니까. 여러분 2를 말이죠, 2라는 숫자를 30번 곱해보세요, 둘이 둘 낳고 둘이 둘 낳고 이렇게 해 가시고 2,4,8, 16, 32, 64 이렇게 나가지죠, 그러면 30승이 되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천년동안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나? 바다 모래처럼 많아지죠,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만 추려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소수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결국 이 땅은 완전히 심판이 있고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시대가 열릴 때는 다시 세계 중심으로 본래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 분을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작정하신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민족들보다 더 많이 내 명령을 사악함으로 바꾸었고 내 규례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보다 더 많이 바꾸었으니 이는 그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 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만들었죠, 택하신 민족이니까 축복을 하셨죠,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잠언1장 32절 봅시다.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멸망을 시켜요, 어리석은 사람들 아 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멸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려 주시는데 그걸 못 믿고 조금만 배 고프면 원망 불평하고 그랬죠, 고기 좀 달라고, 막 불평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 가지고 아마 토네이도를 불게 했을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옮겨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똑 떨어 뜨렸어요, 메추라기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게 허리까지 찼단 말 이에요, 막 잡아먹었거든, 그리곤 잡아먹은 다음에 고기가 입속에 그냥 있을 때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불평하고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줍니다. 그런 다음 멸망시켜버려요, 이걸 알아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죠, 제가 많이 봐요, 조금 축복해 주면 확하고 나가버립니다. 이상하게도 대적하고 나가버리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죠, 축복해 주면 안돼요, 그래서 이게 부요해져가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긴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앗리리아 왕이 바빌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팔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거하니라.

그들이 거기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니 사자들이 그들 중 몇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앗시리아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옮기시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신 민족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셨으니, 보소서, 사자들이 그들을 죽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이다.”하더라.

그러자 앗시리아 왕이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거기서 데려온 제사장들 중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들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하며, 그로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하니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들 중 하나가 뵤엘로 와서 거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산당들에 두었으니 각 민족이 그들이 사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도를 몰라서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민족들보다도 오히려 너희가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 번성하고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며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공의에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된다. 어리석은 백성이다. 이런얘기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예언한게 있어요, 신명기 32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서 걸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굶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여수론이 이스라엘입니다. 여수론이 살이 쪼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어 차버린 거예요, 살이 찌고 굶어지고 기름 안 먹어도 기름이 번드르 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교회들이 커지니까 대형화 되니까 WCC에 들어갔잖아요, WCC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축복을 해주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조상들 덕에 지금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습시다. 축복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WCC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 길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는 결국 심판이 바로 코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코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굴 쓰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도 북쪽 바벨론을 썼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를 썼습니다.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한국은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얘기할 필요없죠, 북쪽에 다 있잖아요, 이북도 있고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부다 붉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희생제물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6.,17절보면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로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이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너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의로 훈육함과 결국은 모든 성경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민족들의 목전에서 네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번성케도 하시고 또 황폐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면서도 기뻐하십니다. 백성이나 자녀들을 번성할 때 그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다시 황폐케 하면서도 기뻐하세요, 그래야만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 이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축복을 받을 때도 선이 또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위해서 선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징계가 올 때도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거구나, 회복하는 거구나, 이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얼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우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래서 신명기 28장 63절에 보은 28장이 뭐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이런 말씀이죠.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진다. 63절 보면

"주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죄를 지으면 육신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악한 자를 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는 겁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

량이 우뚝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몸 안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보니까 너희 모든 가증함 때문에 전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할 그 같은 일을 네 안에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심판은 전무후무하다. 이런 심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또 메시아도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권을 받은 민족이죠,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순종할 때에 그 징벌이 열배 천배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 거역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처절함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왜 그것이 죄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욕수에 나타나는 것들이 죄인 것 인줄 착각하고 있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소서 진정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으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